

전국 첫 마을 통째 격리... 고립무원 적막감만

메르스 확진환자 나온 순창군 마을 가보니

농작물 관리 애타고 직장 못가 생계 걱정 89가구 105명 생필품 조달 불편 등 호소 대부분 노인들 “병원 진료 못받아 갑갑해”

7일 광주에서 30분 거리인 순창지역 한 마을 입구는 호남권 최초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한 마을이라는 위기감·불안감을 엿볼 수 있었다. ‘출입통제’라는 커다란 간판 옆에서 방호복과 마스크를 착용한 경찰과 공무원들은 외부인들 뿐 아니라 마을 주민들의 자유로운 왕래조차 철저히 차단하고 있었다. ‘통째로’ 격리된 마을에는 적막감이 감돌았고 농번기철로 부지런히 돌아다니야

하는 주민들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쓸쓸했다. 이 마을은 지난 4일 주민 A(여·72)씨가 메르스 확진자로 판정된 이후 외부와 격리됐다. 마을에서 외부로 나가는 도로 4곳에는 ‘출입통제’를 알리는 간판이 세워졌다. 경찰과 군에서 나온 직원들이 24시간 내내 출입자를 통제하고 있다. 출입 통제된 뒤 4일째 접어들면서 상당수 주민들 사이에서는 정부 방침을 인정하

면서도 불만을 터트리기 시작했다. 당장, 농번기철 농사를 망치게됐다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89가구 105명의 주민 대다수는 농번기철, 한창 바쁠 시기지만 자유로운 왕래가 불가능해 농사를 포기해야할 지경이라고 하소연한다. 논에 물 대는 것도 마음껏 할 수 없고, 농약을 구하러 밖으로 나갈 수도, 모내기를 도와줄 일손 구하기도 쉽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 농사 외에 다른 일거리를 찾아 읍이나 타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주민들은 “이해하지만 무작정 얼마나 기다려야 하느냐”면서 “굶어 죽게 생겼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일용직으로 매일 일거리를 찾아 나서야 한다는 마을 주민은 광주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우리같은 사람들은 논 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거리를 찾아 외부로 나가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하소연했다.

생필품 구입도 힘들어진 상황이다. 주민들은 하루 3차례 방문하는 순창군 보건국의료원 직원들에게 생필품 목록을 적어줬다가 시간에 맞춰 마을 입구로 가 가져오는 불편한 생활을 감수하고 있는 처지다. 마을 입구 초소에서 근무 중인 경찰 관계자는 “보통 하루 2~3명의 마을 어르신들이 ‘밖에 다녀오게 해달라’고 마을 입구로 내려오곤 한다”며 “매번 급한 용무가 아니면 참아달라고 말씀드리지만 그럴때마다 표정이 좋지 않으셔서 근무를 서는 우리의 마음도 불편하다”고 말했다. 마을 이장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라 외부에 있는 농작물 관리를 못하는 탓에 불만들이 많다”며 “생계를 걱정하는 주민들은 물론, 병원 진료가 필요한 노인들은 다니던 병원 진료도 받을 수 없어 많이 힘들어한다”고 말했다. /순창=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메르스 환자 진료 병원 휴진 안내문

7일 휴업 조치를 내리던 전북 순창군 최선영 내과의원 앞을 마스크를 쓴 주민이 지나가고 있다. 정부는 이날 최선영 내과의원을 등 전국 24개 병원을 ‘메르스 환자 발생·경우 병원’이라고 공개했다. /순창=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영아 시신 택배로 보낸 30대 엄마 구속

서울서 아이 울자 숨지게 한뒤 나주 친정어머니 앞으로 보내

나주경찰청은 7일 신생아를 숨지게 하고 시신을 택배로 보낸 혐의(영아살해·사체유기)로 이모(여·3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8일 새벽 2시에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주택 2층 쪽방에서 여자 아이를 출산한 뒤 입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아이가 울자 손으로 입을 막아 숨지게 하고 엿새 동안 방에 두고 있다 부패하기 시작하자 지난 3일 오후 서울시 강동우체국에서 상자에 담아 택배로

친정인 나주시 금천면 어머니(60) 앞으로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시신이 든 택배 상자(가로 30cm·세로 20cm)에 “저를 대신해 아이를 좋은 곳으로 보내주세요”라는 내용의 메모를 동봉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남편과 헤어진 뒤 만난 남성과의 사이에 낳은 아이를 키울 길이 없어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홀로 식당에서 일하며 월세(25만원)를 내지 못하는 등 힘들게 살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나주=손영철기자 ycon@

5·18때 동참 호소 방송 박영순씨 35년만에 재심에서 무죄 선고

5·18 광주민주화운동 마지막 날인 지난 1980년 5월 27일 새벽 광주시 동구 옛 전남도청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항쟁 동참을 호소하는 마지막 방송을 했던 박영순(여·56·사진)씨가 35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홍진표)는 5일 내란부화수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1980년 5월 27일 새벽 2시30분, 광주시 동구 옛 전남도청에서 계엄군의 도청 진입 직전에 “시민 여러분, 지금 계엄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계엄군 총검에 숨겨지고 있습니다. 모두 일어나 계엄군과 끝까지 싸우시다”는 내용의 방송을 했다. 당시 송원전문대 유아교육과 2학년(당시 21세) 학생이던 그는 이후 같은 해 10월 25일 당시 김대중 내란 음모에 가담한 혐의(계엄법 위반 등)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박씨는 “남편이 20년 동안 해군으로 활동하면서 받은 불이익에 대한 미안함이 있었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

에게도 따뜻한 엄마가 되고자 재심을 청구했다”며 “상처가 치유되지는 않았지만 이번 판결로 위로를 받고 지독했던 악몽도 끝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월민주여성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는 박씨는 “여전히 ‘폭도’로 누명을 쓰고 있는 시민들이 적지 않다”면서 “5·18 희생자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광주도 음주운전 단속 일시 중단

메르스 확산 우려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광주지역 경찰의 음주단속도 ‘사실상’ 중단됐다. 메르스 확산 우려 등을 고려해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만

음주 감지기를 불도독 하는 등 음주 의심 차량을 선별 단속하겠다는 것이지만 길을 막고 모든 차량을 검문하던 기존 단속 방식이 아닌데다, 감지기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음주 단속 중단이라는 의미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7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이 지난 3일 메르스 확진환자 발생 지역에서 차량 검문 방식의 음주단속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음주단속 긴급 업무지시’를 하달한데 따라 의심 차량을 선별 단속하는 방향으로 ‘음주운전 단속 방식’을 변경키로 했다. 호흡 측정 과정에서의 전염 우려를 고려한 조치로, 단속 지점 주변에서 갑자기 차로를 바꾸며 의심스러운 모습을 보이

거나 차 운행 상태가 불안정해 보이는 운전자 등 술 마신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만 음주 감지기를 불도독 하겠다는 것이다. 음주 감지기 사용때도 경찰에게 마스크와 장갑 착용을 의무화하고 사용 직후마다 약품으로 소독해 사용토록 해 ‘음주 단속 불가’라는 게 일반적 시작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여성 영당이 문 애완전 주인에 “벌금 400만원 물어내”



○법원이 애완전을 소홀하게 관리한 책임을 물어 개주인에게 고액의 벌금형을 부과. ○광주지법 형사 6단독 모성준 판사는 지난해 10월 13일 오전 담양군 도로에서 목줄을 매지 않고 애완견을 따라오게 하다 도로에 있던 40대 여성의 영당이 등을 물어 전치 6주의 상처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된 조모(76)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를 목줄로 매어놓았다면 충분히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심해 고통받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신축 원룸 매매

전대정문 2분! 후문 2분(신축 4층건물)
월세 인기좋은 / 임대 걱정없음
룸12개, 올 대리석시공, 신축
(1층점포 1개, 2~3층 룸 10개, 4층 주차 1개, 옥탑)
옥상에 파리를 설치

월수익 500만
매매가 6억 7천

| | |
|---|---|
| ① 북구 문흥동 룸14개 월수익 430만 매매가 7억4천만 | ⑤ 남구 백운동 대창 1차 AP.124평 보1천 월60만 가격저렴 매매가 1억1천500만 |
| ② 북구 용봉동 토50평 건150평 월수익 450만7개 매매가 8억 | ⑥ 상무지구 수림오피스텔 6층 23평 보5백 월 50만 매매가 9천만 |
| ③ 북구 문흥동 전대후문 5분거리 월수익 540만 매매가 8억5천만 | ⑦ 상무지구 수림오피스텔 6층 19평 보 5백 월 42만 매매가 16억 |
| ④ 서구 쌍촌동 원룸 11평 30평(보1천, 월수익30만) 매매가 3천500만 | ⑧ 상무지구 수림오피스텔 6층 13평 보 3백 월 32만 매매가 5천만 |

010-6832-9700
010-6834-4800

상가건물매매

<나주시 삼영동 2층 건물>

1층 6칸, 2층 2칸
토 205평, 건 47평
나주 영강초교 정문 앞
학원건물 적합

※ 학원 / 도장 / 분식점 운영적합

월수익 200만 매매가 3억

| | |
|---|--|
| ① 서구 화정동 영주사거리 옆 3층건물 (1층상가2층상가, 3층주방) 매매가 7억2천만 | ⑤ 서구 상무지구 5층건물 월세 1천 9백 매매가 20억 |
| ② 수완지구 모아엘71만 4층중 3층 86평 월수익 170만 매매가 4억 | ⑥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스 45평 보 1천 월 60만 수익 매매가 1억1천만 |
| ③ 수완지구 수완동 3층건물 신축 토지144평, 건260평 월수익 800만 매매가 16억 | ④ 서구 상무지구 정전 3층 상가 30평(보1천 월70만 수익) 매매가 1억 3천만 |

010-6670-9800
010-6834-4800

상가임대

<상무지구>

상무지구
5층사무실·임대
(현, 학원운영중)

①평수 : 100평 (분할가능)
5층 전체사용
보증금 2천만원 월 130만
(시설완비, 즉시입주가능)
(엘리베이터 완비, 주차 3대 무료,
금용가도로 바로 이면코너)

②평수 50평→보증금 2천만 월 70만

상무지구 롯데마트 옆
(수림오피스텔) 6층
즉시입주가능

③605호 → 19평 보300만 월 40만
④606호 → 23평 보300만 월 42만
⑤614호 → 13평 보200만 월 32만

010-7384-7800
062-527-7600

(주)대신경매

이제 경매는 대중화 시대
입찰부터 매매 임대까지

수익성 상가 (근린 상가)

1.서구 금동동 7층상가(토180㎡, 건236㎡)감정가 6억96천→최저가 2억93천(유용상가)
2.광산구 월계동(토42㎡, 건135㎡)감정가 2억→최저가 1억4천(점단상가)
3.북구 본촌동 1층상가(토586㎡, 건1726㎡)감정가 14억→7억7천(1층상당)
4.북구 중흥동 1층상가(토20㎡, 건47㎡)감정가 2억3천→최저가1억3천(전대당)

수익성상가 (근린주택)

1.서구 양동 2층건물(토180㎡, 건259㎡)감정가 3억2천→최저가 1억9천(양동투자적합)
2.여수시 교동 4층건물(토180㎡, 건259㎡)감정가 13억→최저가 6억9천(투자적합)
3.목포 산정동 4층건물(토1857㎡, 건517㎡)감정가 3억9천→최저가 1억5천

수익성 상가 (근린 시설, 통건물)

1.화순읍 삼천리 2층건물(토7385㎡, 건476㎡)감정가 77억→최저가 43억(롯데마트)
2.광양시 중동 6층건물(토767㎡, 건3276㎡)감정가 26억→최저가 18억(광양 시내건물)
3.담양읍 금성면 (토9200㎡, 건882㎡)감정가 27억→최저가 9억9천(숙박시설, 투자적합)

공장 / 주유소 / 모텔 / 특수물건

1.북구 중흥동(토390㎡, 건373㎡)감정가 11억→최저가 6억2천(모텔)
2.광산구 신기동(토4300㎡, 건물169평)감정가 16억→최저가 11억 (주유소)

직원 구함

경매직원구함, 경매 컨설팅 같이 할 직원 구합니다.

010-7384-7800 / 010-6670-9800
062-226-4600

경매 실전교육반

바로실전 교육듣고 수익창출가능
매주목요일(오전반, 오후반)
경매기본 교육부터 ~ 실전까지
(입찰·매매·임대·개발기획까지)

★ 경매학원에서 배우실 분 환영
★ 경매직원구함 (남, 여)
★ 경매컨설팅하실분 (상무지구, 수완동, 법원)

062-382-5500
010-2699-5300

토지보상 경매교육

1) 경매교육개강(수완지구 오픈)
(엔피엘+토지보상 경매교육)

★6월 21일 일요일 풀강의
★오전 9시 ~ 오후 8시
★서울 유명 초빙교수님

062-382-5500